

## 연세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1-2번

- ☞ 제시문 <가>에서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를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육식을 거부하는 화자의 아내의 태도를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분석하시오. (600자 안팎, 20점)

<가>

“아, 그래요..... 정원이 참 잘돼 있죠. 낮에 오면 더 좋아요. 저 창문으로 화단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내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팽팽한 노력의 끈은 끊어졌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썬 목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더러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돼가는 것 같아.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주의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게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다>

실험자는 심리학 실험실이 있는 건물 로비에서 참가자를 맞았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실험실로 올라가면서, 실험자가 참가자에게 가벼운 투로 서류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야 하니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잠시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커피를 돌려받고 참가자에게 클립보드의 서류를 건넸다. 모두 10초 안에 벌어진 상황이지만, 참가자가 커피를 들고 있던 잠깐의 시간이 우리 연구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실험실에 들어가서 참가자는 어떤 사람에 관한 소개문을 읽었다. 다른 참가자들도 동일한 소개문을 읽었다. 흥미롭게도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은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보다 그 사람을 더 좋게 보았다. 물리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온도를 경험한 것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사회적 감정을 활성화시켰고, 이것은 다시 참가자들이 타인에게 느끼는 호감에 영향을 미쳤다. 모두 무의식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실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자, 커피를 들었던 경험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못 한 것은 당연했다. 따뜻하거나 차가운 무언가를 잠깐 들고 있는 행위가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한 이후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방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였다. 오전 9시쯤에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학회장으로 내려가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다. 과학 전문 기자에게 온 전화였다. 몇 달 전에 발표한 커피 논문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 관한 기사라서 특히 나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로렌스 윌리엄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했다. 나는 열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로렌스를 칭찬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연구자인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다 잠시 숨을 고를 때 기자가 던진 한마디에 나는 무척 놀랐다. “혹시 지금 뜨거운 커피를 들고 계신가요?” 나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오른손을 보였다. 기자 말이 맞았다. 오른손에는 객실 커피머신에서 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들려 있고, 왼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맙소사, 그렇군요. 와.”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딱 걸리셨네요!”

<라>

유아에서 성인으로, 그리고 노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30년 이상 성장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최근이나 가능해진 일이다. 이러한 전향적(prospective) 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지던 회고적(retrospective) 연구의 수많은 가설들이 폐기되었다. 회고적 연구는 성인기에 이른 개인의 모든 특성을 설명해 낼 수 있었다. 기억을 통해 개인의 삶을 되짚어보면 설명에 필요한 퍼즐 조각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단서만 있으면 충분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친척, 엄격한 부모, 교통사고, 폭력적인 이웃 등을 끌어들이 수도 있었다.

유년기가 성인기의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행된 전향적 연구들에 따르면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훌륭하게 노년에 이른 사람과 최악의 노년에 이른 사람의 유년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둘 사이에는 주목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어린 시절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다거나, 일찍 대소변을 가렸거나, 늘 감기를 달고 살았거나, 신경이 예민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두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불행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50세쯤 되면 유아기 때의 신체건강, 형제간의 나이 터울이나 태어난 순서, 심지어 부모를 일찍 여윈 것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인이 된 자녀가 정신 이상을 앓고 있는 경우, 모든 부모는 아이가 영유아기 시절에 겪은 문제들(공포증이나 지나친 수줍음 등)이 18세에도 계속 나타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에도 60퍼센트 정도는 그와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고아로 자라난 사람이라 해도 80세 즈음이 되면 부모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복하고 기운이 넘칠 수 있다는 얘기다.

불행한 유년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는 가설도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가설도 회고적 원인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알코올 중독자나 의사들은 회고적 견지에서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불행한 유년기를 지목한다. 그러나 전향적 연구를 근거로 보자면, 기억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놓을 뿐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지는 않았으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 제시문 <가>에서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를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육식을 거부하는 화자의 아내의 태도를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분석하시오. (600자 안팎, 20점)

[독해]

(가) 아내: 채식주의자, 좌중: 육식 - 인간의 본질(정상)적 속성 → 신체적, 사회적 건강

(다) 물리적 환경이 사람의 판단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 유년기 경험이 성인기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다)	환경	판단에 영향
대상	(가) 좌중	사회문화적 환경	좌중의 판단에 영향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라)	과거의 경험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로 판단
대상	(가) 아내	사회로 인한 자극과 무관하게	자신의 채식주의 결정

[예시답안] 563자

문단	기능	내용
1-1	기준	제시문 (다)에 의하면, 한 인간의 판단에 있어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1-2	주장	이에 따라 제시문 (가)에서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간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상	좌중은 육식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 알맞은 식성이고, 역사적 전통을 가진 정상적인 특성이라고 설파하며 채식주의자 아내를 비판하고 있다.
	적용	하지만 좌중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주장이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이 심어 놓은 선입견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육식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통적 식문화에 의해 생긴 편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	기준	반면, 제시문 (라)에 의하면 한 사람의 판단이 꼭 과거 그 사람이 겪었던 일들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2-2	주장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의 아내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한 신념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상	아내는 식사 자리의 어색함을 감수하고 채식주의의 신념을 밝혔다.
	적용	이는 육식주의를 정상으로 취급하는 사회 속에 살면서도 독립적으로 채식주의의 신념을 생성한 행위로서 자기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학 출제의도]

제시문 <다>와 <라>에 소개된 연구를 이해하고, 두 연구가 각각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을 문학작품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대학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화자의 아내(주인공)가 육식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육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주인공에게 강권하는 좌중과 채식주의를 선택한 주인공의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제시문은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개인의 식습관이 자유의지의 산물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제시문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발췌되었다.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가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보다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했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참가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이 스스로 의도했다고 생각한 행위가 실은 환경에 의해 유도된 것일 수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점에서 제시문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John Bargh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Before you know it)』에서 제시문을 수정 발췌하였다.

제시문 <라>는 유년기 환경의 영향에 관한 회고적 연구의 결과를 반박한다. 회고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기억(회고)에 의존하여 현재의 상태(성인기 행복 또는 불행)와 일치하는 과거의 조건(유년기 환경)을 찾으려 하였다. 그에 비해, 최근에 가능해진 전향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장기간 추적함으로써 유년기 환경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보다 작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제시문은 ‘환경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George Vaillant의 『행복의 조건(Aging well)』에서 제시문을 수정 발췌하였다.

### [대학 채점기준]

[문제 1-1]의 제시문 <다>와 <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좌중과 아내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좌중은 다수가 따르는 육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아내에게 강권한다. 아내의 입장은 이들과는 반대로 인간의 식습관이 자유의지에 따른다고 믿으며, 결과적으로 채식주의하기로 선택한다. 즉 인간의 식습관을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회적 결정을 아내에게 강요하는 좌중의 태도는 제시문 <다>에 나타난 결정론적인 사고에 가깝다. 반대로 자유의지를 따라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아내의 입장은 인간이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는 제시문 <라>의 연구를 통해 좀 더 잘 설명된다.

### [대학 예시답안] 553자

제시문 <다>에 따르면 인간의 결정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식습관에도 환경요인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제시문 <가>의 좌중은 자신들의 식습관을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좌중이 채식주의를 본능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고 주인공에게 육식을 권하는 행위를 자유

의지의 발현이 아닌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분석할 것이다.

제시문 <라>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기존 회고적 연구의 결론, 즉 인간의 삶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향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한 개인이 육식을 당연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음식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제시문 <가>에서 좌중의 권유와 설득을 거부하며, 채식은 고수하는 아내의 행위는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검토교사 의견>

- 사회과 교사: [문제 1-2]는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과 채식은 선택한 아내의 의견 대립이 나오는 소설의 내용을 읽고, 음식에 대한 태도에 작동하고 있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의 행위 원리를 적용·분석하라는 문제이다. 앞의 [문제 1-1]에서 파악한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의 행위 갈등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문 <가>에 대한 이해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에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에 따른 학습 과정에서 익힌 활동이다. 좌중과 아내의 갈등에 대해서는 <화법과 작문>의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한다.”를 통해 쟁점에 대한 논증화 과정을 학습해왔다. 따라서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소설의 내용을 쟁점과 연관시켜 구조적으로 이해한 후 각 입장을 분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제시문 독해 및 쟁점 파악에 능숙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
- 국어과 교사: [문제 1-2]는 제시문 <다>와 <라>의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소설에 적용하여 좌중의 태도를 설명하는 문제이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서사 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법, 즉 소설의 형상화 요소 중 하나인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나 인접 분야, 상호 텍스트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해석, 감상하는 것을 성취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또 제시문 <다>와 <라>는 제시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다>, <라>를 통해 소설을 읽는 것은 다양한 주제의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 고등학교 국어 읽기 영역이나 독서 교과 등을 통해 학습하였으므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시문 <다>는 결정론, <라>는 자유의지에 연구 초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제시문 <가>의 좌중의 선택을 결정론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화자 아내의 선택을 자유의지로 분석한다는 점을 잘 파악했다면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는 ‘중’ 정도이다.
- 영어과 교사: [문제 1]은 제시문<나>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론자와 양립론자의 견해 차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와 <라>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고등학교에서 영어Ⅱ 과목 ‘읽기’ 영역에서 배우는 ‘글을 읽고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제시문<나>의 내용을 이해한 후, ‘쓰기’ 영역에서 배운 대로 비교·대조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서 배우는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의 ‘읽기’ 영역에서 다루는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이해하며,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충분히 수행한 학생은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